

보고서 : 실습과제 1, 실습과제 2

2019112096 서준원

I. 실습과제 1 - 이분법

I-1) bisection.m 코드 전문

```
%% 0. 이분법을 활용한 방정식의 해 찾기 스크립트
clear, clc;
%% 1. 선언 및 입력
syms x; % x는 함수의 정의역
f(x) = input('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십시오 : '); % 방정식 f(x) 입력
disp("초기값 x1과 x2의 조건 : f(x1)*f(x2) <= 0"); % 초기값 조건 출력
x1 = input('초기값 x1 입력 : '); % 초기값 x1 입력
x2 = input('초기값 x2 입력 : '); % 초기값 x2 입력
max_err = input('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'); % 최대오차 입력
err = 1; % 초기 오차 설정
no_iter = 0; % 실행 횟수 카운터 설정
%% 2. 알고리즘 실행
while err > max_err % 오차가 최대 오차보다 작아지면 루프 중단
    no_iter = no_iter + 1; % 카운터 1 증가
    xmid = (x1+x2)/2; % 중간값 계산
    if f(x1)*f(xmid)<0 % x1과 중간값이 이분법 사용 가능할때
        x2 = xmid; % x2를 기존 중간값으로 대체
    elseif f(xmid)*f(x2)<0 % x1과 중간값이 불가능하면 x2와 중간값 비교
        x1 = xmid; % x1을 기존 중간값으로 대체
    elseif (f(xmid)*f(x2) == 0 || (f(xmid)*f(x1) == 0)) % 중간값이 정확히
        해일 때
            disp("정확한 해를 찾았습니다!"); % 메시지 출력
            disp("정확한 해 = " + xmid); % 정확한 해 출력
            return; % 스크립트 실행 중지
    else % 이도 저도 아니면 (=오류)
        disp("오류 발생! x1과 x2를 제대로 입력해주세요."); % 메시지 출력
        return; % 스크립트 실행 중지
    end
    root = xmid; % 결과값 대입
    err = abs(f(root)); % 오차 계산
end
%% 3. 결과값 형변환 및 출력
err_output = double(err); % 오차값 실수형으로 형변환
disp("연산을 반복한 횟수 no_iter = " + no_iter); % 반복 횟수 출력
disp("해의 근사값 root"); root
disp("발생한 오차 err"); err_output
```

I-2) 실행 결과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1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3 - 3x + 1$

초기값 x1과 x2의 조건 : $f(x1)*f(x2) <= 0$

초기값 x1 입력 : -3

초기값 x2 입력 : -1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연산을 반복한 횟수 no_iter = 12

해의 근사값 root

root =

-1.879394531250000

발생한 오차 err

err_output =

7.056735921651125e-05

I-3) 실행 결과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20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3 - 3x + 1$

초기값 x1과 x2의 조건 : $f(x1)*f(x2) <= 0$

초기값 x1 입력 : -3

초기값 x2 입력 : -20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오류 발생! x1과 x2를 제대로 입력해주세요.

I-4) 실행 결과 - $f(x) = x^2 + 2x + 1$, $x_1 = -2$, $x_2 = 0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2 + 2x + 1$

초기값 x1과 x2의 조건 : $f(x1)*f(x2) <= 0$

초기값 x1 입력 : -2

초기값 x2 입력 : 0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정확한 해를 찾았습니다!

정확한 해 = -1

II. 실습과제 2 - 할선법

II-1) secant.m 코드 전문

```
%% 0. 할선법을 이용한 방정식의 해 찾기 스크립트
clear, clc;
%% 1. 선언 및 입력
syms x; % x는 함수의 정의역
f(x) = input('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십시오 : '); % 방정식 f(x) 입력
x1 = input('초기값 x1 입력 : '); % 초기값 x1 입력
x2 = input('초기값 x2 입력 : '); % 초기값 x2 입력
max_err = input('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'); % 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
n=2; % 증감 카운터 선언, 2부터 시작 (점화식)
x(1)=x1; % x벡터의 인덱스 1에 x1 대입
x(2)=x2; % x벡터의 인덱스 2에 x2 대입
err=1; % 초기 오차 설정
%% 2. 알고리즘 실행
while err > max_err % 오차가 최대 오차보다 작아지면 루프 중지
    n = n+1; % 카운터 1 증가
    if f(x(n-1))-f(x(n-2)) == 0 % 초기값의 중간값이 해일 때
        disp("정확한 해를 찾았습니다!"); % 메시지 출력
        answer = ((x(n-1))+x(n-2))/2; % 해 계산
        disp("정확한 해 = " + double(answer)); % 형변환된 해 출력
        return; % 스크립트 종료
    end
    k = (f(x(n-1))-f(x(n-2)))/(x(n-1)-x(n-2)); % 기울기 k 선언
    x(n)=x(n-1)-(f(x(n-1))/k); % 점화식 선언
    err = abs(f(x(n))); % 발생한 오차 계산
end
%% 3. 결과값 형변환
root = double(x(n)); % 결과값을 실수형으로 형변환(기존형 : rational)
err_output = double(err); % 오차값을 실수형으로 형변환(기존형 : rational)
%% 4. 결과값 출력
disp("연산을 반복한 횟수 = " + n); % 연산 횟수 출력
disp("해의 근사값"); root % 실수형 근사값 출력
disp("발생한 오차"); err_output % 실수형 오차값 출력
```

II-2) 실행 결과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1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3 - 3x + 1$

초기값 x1 입력 : -3

초기값 x2 입력 : -1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연산을 반복한 횟수 = 11

해의 근사값

root =

-1.879383738345717

발생한 오차

err_output =

1.141889356258172e-05

II-3) 실행 결과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20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3 - 3x + 1$

초기값 x1 입력 : -3

초기값 x2 입력 : -20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연산을 반복한 횟수 = 9

해의 근사값

root =

-1.879486710116133

발생한 오차

err_output =

7.708401708337936e-04

II-4) 실행 결과 - $f(x) = x^2 + 2x + 1$, $x_1 = -2$, $x_2 = 0$, $MAX.ERR = 0.001$

계산할 x에 관한 방정식을 입력하시오 : $x^2 + 2x + 1$

초기값 x1 입력 : -2

초기값 x2 입력 : 0

허용할 최대 오차 입력 : 0.001

정확한 해를 찾았습니다!

정확한 해 = -1

III. 비교 및 분석

발견했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, 할선법은 이분법과는 달리 초기값의 제한 조건이 없었다는 점이다. $f(x_1)f(x_2) < 0$ 이 전제 조건이던 이분법과는 달리, 할선법은 할선을 그린 뒤 반복하는 과정이므로, 언젠가는 해에 근사되기 때문에 초기값의 제한 조건이 없었다.

III-1) 수렴 속도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1$

두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는 대체로 할선법이 우세했고, 특히 허용 오차가 작아질수록 수렴 속도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졌다.

| | 이분법 | 할선법 |
|------------|-----|-----|
| 0.001 | 12 | 9 |
| 0.000001 | 23 | 10 |
| 0.00000001 | 28 | 11 |

III-2) 오차 - $f(x) = x^3 - 3x + 1$, $x_1 = -3$, $x_2 = -1$

시행 횟수가 적을 때는 이분법 측이 더 정확한 근사값을 구했지만,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할선법 측의 오차가 급격히 줄어든다.

| | 이분법 | 할선법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0.001 | 7.056735921651125e-05 | 9.649826921804344e-05 |
| 0.000001 | 6.568037275068593e-08 | 7.410993129921665e-08 |
| 0.00000001 | 9.083776187660492e-09 | 6.987789515167469e-13 |

편의를 위해 부동 소숫점 15자리 형식에서 실수형으로, 유의미한 소수점에서 버린 변환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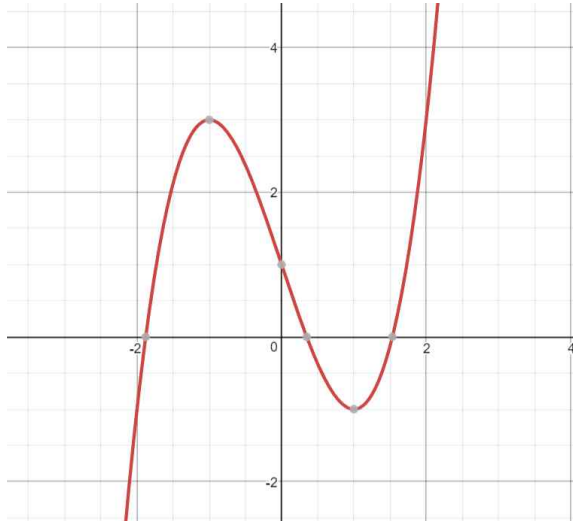
| | 이분법 | 할선법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0.001 | 0.00007 | 0.00009 |
| 0.000001 | 0.00000006 | 0.00000007 |
| 0.00000001 | 0.000000009 | 0.00000000000006 |

III-3) 해를 찾을 가능성

해를 찾을 가능성은 두 알고리즘이 동일하다. 두 알고리즘 모두 초기값의 설정이 정확한 해 탐색 여부를 좌우한다.

$f(\frac{x_2 - x_1}{2}) = 0$ 이나 $f(\frac{x_1 - x_2}{2}) = 0$ 둘 중 하나라도 0이라면 그 값이 바로 해이다.

III-4) 다수의 해가 존재하는 경우 - $f(x) = x^3 - 3x + 1$, $MAX.ERR = 0.001$



그래프 작도를 통해 확인한 $f(x) = 0$ 의 해는 각 -1.879, 0.347, 1.532였다.

이분법의 경우, 두 초기값의 중간값과 x_1 의 사이에 있는 해 쪽으로 근사될 것이다.

할선법의 경우, 첫 할선의 x 절편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해 쪽으로 근사될 것이다.

| | 이분법 | 할선법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(-3, -1) | -1.879394531250000 | -1.879383738345717 |
| (-1, 1) | 0.347656250000000 | 0.347294784910048 |
| (-20, 20) | 0.347290147344840 | -1.879272460937500 |

IV. 저번 보고서의 보강

저번 보고서에서,

“소수점 아래 5자리 이상 출력되었다. 왜 `disp()` 함수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탐구를 몇 번이고 시도해 보았으나, 아쉽게도 밝혀내지 못하였다.”

라고 언급하였다. 이번 과제를 해결하면서, `disp()` 함수에 대해 알아낸 사실 한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.

`disp()` 함수에서 출력되는 변수는, `char`형 즉 문자열로 변환된다. 따라서 `format`의 설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리라 추정된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, 불규칙적인 고정 소수점의 자리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다.